

이해찬 “檢 압수수색은 조국 사퇴 압력”

민주당 현장 최고위...“피의사실 유출 적폐 다시 나타나” 비판 한국당, 특검 언급 후보 사퇴 압박 ... 청문정국 대치전선 확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다음 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이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여당이 이를 강력 비판하고 나서면서 청문 정국에 새로운 대치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여야간 전방위적인 의혹 공방에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사법개혁 소명론을 밝힌 조 후보자가 검찰과 강하게 대립하고, 자유한국당은 특검 카드로 여권과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면서 청문 정국이 요동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28일 조 후보자를 향해 대대적 수사에 돌입한 검찰을 향해 강도높은 비난을 쏟아내면서 검찰에 견제구를 던졌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현장 최고위와 원외 지역위원장 하계 워크숍에서 전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전례 없는 행위로 나라를 어지럽히는 일”이라면서 “후보가 스스로 사퇴하기를 바라는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은 검찰이 압수수색 장면

이 언론 카메라에 잡힌 상황에서 검찰이 법무부와 협의는 하지 않는 점을 비판했다. 나아가 검찰발(發)로 보이는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 보도가 잇따른 점에 주목하면서 “적폐”라고 경고했다. 이 과정에서 진보진영에서 아픈 상처인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 보도까지 거론했다.

이해찬 대표는 “피의사실 유출이라는 가장 나쁜 검찰의 적폐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라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있지도 않은 논두렁 시계를 가지고 얼마나 모욕을 주고, 결국은 서거하시게 만들지 않았느냐. 피의사실을 유포하는 자는 반드시 색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주요 언론들이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문건 내용, 후보자 가족 등에 대한 출국금지 여부, 응동학원 관련 수사상황 등의 내용을 앞다퉀 보도하고 있다”며 “가짜뉴스가 아니라면 결국 검찰로부터 새어나간 정보”라고 말했다.

다. 이어 “피의사실공표법 위반은 과거 검찰의 대표적인 적폐 행위였다”며 “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도 열어 피의사실 유출 등 검찰 수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등 청문정국에 검찰 변수가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공을 들였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계기로 사법개혁 책임자인 조 후보자를 통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더 부각했다. “중도 사퇴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조국 대 검찰’, ‘개혁 대 반(反)개혁’ 구도를 만들면서 검찰개혁을 압박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바로 특검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한국당의 특검 카드는 검찰의 수사가 면죄부 수사가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포

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청문회 이후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데 할 경우를 대비한 의미도 있는 모습이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연찬회 도중 긴급 의총을 열어 청문회 보이콧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청문회 일정을 이미 합의한 데다 이번 청문 정국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이유로 내부에서도 청문회 보이콧 방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제시되면서 일단 보류됐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조국 사퇴 촉구 대회’를 여는 등 연일 전방위 사퇴 공세를 하고 있다. 앞서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에서 “후보자가 임명된다고 해도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로 검찰 앞에 서는 상황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정말로 결단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조 후보자 거취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는 정의당의 기류도 바뀌고 있다.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당원과 지지자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靑, 한국당 ‘청문회 보이콧 검토’ 비판 “절차·기간 고시된 청문회법 무시... 국회, 법 위에 있나”

청와대는 28일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보이콧’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국회가 법 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하면서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가 적합한 직무능력과 자질을 가졌는지 검증하는 자리이며, 후보자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 능력을 입증해야 하고 국민은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그만큼 자질이 있는지 지켜보아야 하는 자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그래서 절차·기간이 명사된 인사청문회법이 있다”며 “30일이 법정기간임에도 여야 합의로 9월 2~3일로 정해 국민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격이 있는지 알고자 하는 열망이 워낙 뜨거워서 해당 일자에 해당이 안 되는데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론 아직 보이콧이 결정이 안 됐고 보류한다고 했지만 그런 말이 나오는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운만 쟁 ‘보수 대통합’

‘친박 반발, 바른미래·공화당 동시 포용’ 黃 리더십 시험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연일 ‘보수 통합’을 주장하면서 그간 물밑에서 이뤄졌던 통합 논의가 공론화 단계에 접어들어 모양새다.

지난 24일 서울 광화문 장외집회에서 “자유 우파 통합을 위해 저를 내려놓겠다”고 한 황 대표는 전날 오전 시민단체 거점 ‘우파 통합’을 외쳤다.

그러나 현재까지 황 대표가 구상하는 보수통합이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인지는 알려지지 않으면서 설왕설래가 오가는 상황이다.

일단 당내에서는 한국당을 중심으로 바른미래당과 우리공화당을 모두 끌어안는 방안이 거론된다.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갈라진 바른미래당 유승민계 의원들과 손을 잡게 되는 점에서 한국당 내 친박(친 박근혜)계 의원들의 반발심리가 감지되

는 상황이다.

한 친박계 의원은 “유승민은 절대로 안 된다는 사람들도 있다”며 “그러나 통합의 효과는 유승민이 빠지면 반감되니 사실상 딜레마”라고 말했다.

유승민계와 손을 잡을 경우 이들을 ‘배신자’로 여기는 우리공화당 세력이 한국당에 등을 돌릴 가능성이 큰 점도 변수다. 또한 한국당과의 연대를 표면적으로 거부하는 유승민계도 우리공화당과는 더더욱이 함께할 수 없다는 입장이 다. 황 대표가 ‘보수통합’의 애드벌룬을 띄웠지만, 실질적으로 각 주체 간의 인식 차이가 상당한 만큼 실현 가능성은 가능하기 어려운 셈이다.

이에 당내에선 황 대표가 이제부터 통합 대상들을 만나 주파수를 맞추는 지난한 작업을 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황 대표의 정치적 리더십이 좌우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연합뉴스

‘선거법 개혁안’ 안전 조정위 통과... 오늘 의결 가능성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정개특위 오전 전체회의 소집 한국당, 헌재에 가처분 신청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전조정위원회는 28일 선거제 개혁법안 조정안을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전날 자유한국당의 요구로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4건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안전조정위를 구성했으며, 이날 2차 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안전조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계류 중인 4건의 선거법 개정안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정의당 심상정 의원 대표 발의)을 조정위의 조정안으로 의결했다.

한국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 안전조정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이철하·최인호 의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등 4명의 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자유한국당 장재원·김재원 의원은 기권했다.

김종민 의원은 의결 후 기자들을 만나 “한국당은 회의를 지연하는 데만 관심이 있고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더이상 한국당에 시



28일 오후 속개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전조정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민 위원장 등 여야 위원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간을 주게 되면 정개특위의 임무에 배치된다고 판단하고 의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결 강행 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한국당 주장에 대해선 “부끄러운 기록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에 대해 “선거법 날치기 카드까지 들고나온 더불어민주당의 의회민주주의의 폭거”라고 규정하면서 강력한 저항

을 예고했다. 최고일 의원을 비롯한 정개특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를 찾아 안전조정위원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정개특위 안전조정위의 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만약 선거법이 날치기로 통과된다면, 우리 당은 강력히 저항할 것이

고, 그 저항의 끝은 민주당이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정개특위 홍영표 위원장은 2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소집한 상태다. 정개특위 활동이 오는 31일 끝나는 만큼 이날 법안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이견을 빚고 있는 여야 4당과 한국당의 충돌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바른미래 “3지대 대통합개혁정당 추진”

손학규선언TF 7대 과제 발표...10월 총선거획단 출범

바른미래당 ‘당 대표 선언 이행 TF(태스크포스)’는 28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제3지대에서 ‘대통합개혁정당’(가칭)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수봉 인천 계양갑 지역위원장을 팀장으로 하는 TF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손학규 선언 이행을 위한 3대 목표 및 7대 전략과제’를 발표했다.

앞서 당 지도부는 ‘손학규 선언’에 담긴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 26일 대표 직속의 TF 기구를 꾸렸다. TF는 이수봉 팀장을 포함해 원외 인사 6명으

로 구성됐다.

TF는 ▲당 통합·개혁 실현 ▲대통합 개혁정당 추진 ▲총선 준비체계 구축 등 3대 목표와 함께 7개의 목표별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TF는 내달 말까지 7대 과제를 모두 실행에 옮기겠다는 계획이다.

TF는 “당의 통합을 위해 손학규·안철수·유승민이 참여하는 통합과 승리의 길을 제시하겠다”며 “피해당 당의 이미지를 탈바꿈하고 기독교 정치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TF는 총선 6개월 전인 오는 10월 중순까지 총선거획단을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무안군 몽탄면 대형펜션

영선강 접 경관 최고 땅 4890㎡ 펜션 14동과 수영장 등, 광주서 20분 목표서 10분, 토지상의 2천여평은 복지시설에 적합, 휴게소도 적합, 32억

펜션·전원주택지

- 완도군 청산면 신흥리 대지 440㎡ 주택 53㎡ 조용한 생활 최적합 4500만원
- 영광 백수읍 백암리 서해안 조망최고 대지 등 1130㎡ 1억3천
-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680㎡ 목표대학 인근 4400만원

투자·매도·교환

- 광양시 옥룡면 동곡리 산 4959㎡ 펜션적합 교환가능 4억5천
- 남구 서동 상가와 137구 허가지역 땅 342㎡ 매도 4억3천
- 남구 덕남동 매립된 땅(답) 8232㎡ 주위조경좋은 9억4800
- 남구 덕남동 (노대동 노인건강타운) 부근 대지 652㎡ 남향 생활편리 5억5천
- 수목장 허가지 덕남동(화순읍 세라리) 6645㎡ 조망좋은 2억
- 사찰적합 남구 덕남동 산 26951㎡ 건물 67㎡ 주위환경 좋음 8억
- 운양동 아파트 상가 지하 205㎡ 사무실·창고 등 다용도 은행 8천 교환 1억8천
- 서구 차령동 대형건물 중 1층 264㎡ 현관실인 다용도 가능 은행 8억 교환 19억
- 곡성군 입면 매월리 입아·전 24092㎡ 약초재배·농장 등 적합 9천만원

상가건물

- 목포 옥암동 여관객실 27 대지 439㎡ 건평 989㎡ 국민은행 4억 매도 5천만원
- 문흥동 4층빌라 땅 410㎡ 건평 613㎡ 안집 30평(공실)과 16실 전세 1억9천 월 510, 14억
- 농성동 새 원룸건물 대지 343㎡ 건평 712㎡ 1층 가계 49평은 공실 17억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물건

- 신안군 암태면 부두에서 배로 10분거리 독립성 56233㎡ 독립생활에 적합 3억6천
- 요양시설 최고 명품 펜션면 땅 5416㎡ 1층 477㎡ 중독가능 환경양호 은행 4억 매도 교환 8억5천
- 목포대 인근 무안청계 2층 주거지 땅 4413㎡ 축합 2억4천 투지에 좋음 4억4천
- 담양군 대덕면 잠종지 8451㎡ 도로연결 좋은 물류창고 등 다용도 8억(은행4억5천)
- 나주시 남대동 상입지 959㎡ 오피스텔·소형APT적합 교환가능 12억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등 적합 6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지난 20년간 13,000여명이 수강한 명강의

불황기에 뜨는 부동산 경매강의

(컨설팅과 재테크)

전임강사 : 정영수 경영학박사 (부동산 전공)

- 평생교육공로 교육과학부장관상 수상
- MBC - TV 방송국 경제특강
- KBC - TV 아침마다 생방송 출연강의
- 전남대 20년 강의(전대 융통인상 수상)
- 공무원수원, 중소기업청, 한국전력 등 150여회 이상 특강

특전

자격 취득 희망시, 공인부동산발명경영관리사, 부동산분양상담사, 부동산관리분석사 등 자격 취득도록 책임지도하며 수료후 모임체 결성하여 평생지도하여 드립니다

강의일정 | 2019년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19:00~21:00

강의료 | 210,000원(15주) *선착순 50명

조선대 평생교육원

전화 062) 230-7700-2(010-5613-1808)

장성토지매매!!

- 4층,30평 Apt50채 건축부지 <1가구 전원주택지로 최고>
- 지번 : 장성군 장성읍 안평리 648-1, 2 및 38, 나대지
- 면적 : 3,646㎡ (1,104평) 읍에서 5분거리
- 환경
- 좌측 : 바로 옆 피톤치드 편백숲, 곰의산책길, 오솔길
- 우측 : 대형블루베리농장, 환상의 캠핑장, 맛집
- 감정가 : 8.8억 (평당 80만원)
- 매매가 : 7.7억여원 (평당 70만원)
- 상·하수도, 도시가스 인입 가능

문의 010-3602-3881(주인)

임야

바로 삽니다

문의. 010-6834-7400